지역민의 산사음악회

늦가을비가 억수같이 내린 10월 27일, 남녘 땅끝마을 작은 절 미황사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가 관심을 끌었다. 이 음악회가 관심을 모은 이유는 우선, 기획부터 준비, 출연진 등 전부가 미황사 인근에 사는 지역민들이 맡아 이루어진 축제였기 때문이다. 섹스폰연주를 한 김세화씨도, 판소리로 심금을 울린 소릿꾼 정기열 박병영 노인도 사하촌 주민들이다. 송지면 주부풍물패가 풍물놀이와 남도민요를 흥겹게 연주했고, 절아래 서정초등학교 학생들과 인근 교사들도 마음껏 재주를 뽐냈다. 음향, 무대, 음악도 다 지역민들이 맡아 며칠씩 절에 와 살다시피 하며 준비했다고 한다. 따라서 미황사 라는 절을 무대공간으로 택해 지역민들은 추수가 끝난 후 마음껏 흥을 돋구며 자신들의 재주를 뽐내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한 것이다.

주지 금강스님은 "농촌에 사는 지역 불자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농촌사찰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작년부터 연 음악회도 철저히 지역민 위주로 꾸미고 즐기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부언한다. 미황사는 내년에는 매주말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한문학당을 열 계획이다.

관람료를 받는 큰 사찰일수록 인근의 사하촌포교에 등한시 하고, 또 상당수 지방사찰들이 지역민들보다는 도시에 사는 '재력있는 신도'에 의지해 사찰을 꾸려가는 현 상황에서 지역민들에 의한, 지역민들을 위한 사찰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미황사의 노력이 돋보인다.

또하나, 미황사의 이번 조촐한 음악회가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한 불자 작곡가 겸 지휘자의 말 때문이다. 그는 "최근 산사 음악회를 개최한 일부 사찰들이 유명 가수들은 고액의 출연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앞다투어 '모시면서', 정작 불자성악가나 합창단 등에는 인색하다"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 유명가수를 꼭 불러야 한다면 출연하는 가수에게 자기곡 외에 적어도 찬불가를 한곡 정도는 부르게 해야 사찰음악회의 뜻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경숙<취재1부 부장>

목탁소리

'대구법회' 우려하는 까닭

1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국난극복을 위한 법회'를 놓고, 불교계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불교와 정치'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불국사 등 경북지역 4개 교구본사에서 주최한 법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법회'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오히려 정치행사를 보는 듯 했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법회에는 4천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중 절반 정도가 법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시지부 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었다.

이는 한나라당 불교신도회가 4개 교구본사에 법회를 먼저 제안했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대구지역에서 민심을 듣는 대권 행보 일정에 이번 법회가 포함되었다는 정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불교계가 이번 법회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내년에 지자체 선거와 대선이 잇달아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대구 법회'와 같은 성격의 불교 모임을 계속 마련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분오열 되고 있는 정치판이 그대로 불교계에 옮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현재 한나라당 불교신도회는 대구 법회에 이어 전국 각지 순회법회를 계획하고 있고, 민주당 연등회 역시 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 지역 불교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선거를 앞두고 '표밭'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불심'을 내세워 부지런히 법회 현장을 들락거리고,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고 스님과 불자들을 불러낼 것이 명약관화해 '속(俗)스러운' 밀착 기류가 형성될까 걱정된다.

'정치 행사장'에서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들러리'처럼 앉아 있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어색하다. 불교와 정치는 분명히 길이 다르다. 정치가 권력을 지향하는 반면 불교는 탈속적인 이념과 실천을 지향한다. 내년 대선까지 '종교와 정치'의 만남이 없을 수 없다면 스님들이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파사현정의 자세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수행자의 본분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

오종욱<취재1부 기자>

10월 24~26일 중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州)의 도시 나그뿌르는 인도 각지의 불교도들이 모인 한 바탕 큰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이른바 '불법에 귀의한 날' 대회가 열린 딕샤부미(Dhiksha Bhoomi; 귀의의 땅)는 45년전 암베드까르 박사가 짠드라마니(Chandramani) 스님으로부터 5계 수계를 받고 삼귀의를 읊었던 땅이다. 평소 너른 잔디밭이었던 1만7000여평 규모의 딕샤부미에 발디딜 틈 없이 몰려든 엄청난 인파의 '붓다 만세' '암베드까르 박사 만세'(Jai Buddha, Jai Bhim)의 함성. 이 모든 것이 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참배한 연 인원만도 거의 100만명에 달해, 인도불교 중흥의 새로운 서광이 또다시 비치고 있는 듯 보였다. 4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3억의 인구를 가진 최하층 천민계급 달릿(Dalit)의 100만 힌두교인들의 불교개종식에 앞서 열린 이번 불교도 대회를 이지은 통신원이 참관했다.

<편집자 주>

◇10월 24~26일 3일간 인도 나그뿌르시에서 연인원 10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암베드까르 박사 개종기념 제45회 불교도 대회. 인도 불자들은 아쇼카대왕의 산치대탑을 본떠 만든 대법당 앞에서, 암베드까르 박사의 개종정신을 이어 인도불교의 중흥을 새롭게 발원했다.

100만 불교도 3일 밤낮 "붓다만세" 연호

인도 암베드까르 박사 개종 45주년 기념 대회 참관기

4일 뉴델리에선 힌두교도 1백만명 불교로 개종

■100만 불자 불교중흥 서원한 축제

10월 26일은 인도력으로 제 45회째를 맞이하는 '불법에 귀의한 날'로서 인도의 불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이다. 이 날은 1956년 인도 불가촉천민의 아버지인 암베드까르 (B. R. Ambedkar, 1891~1956) 박사가 40여만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 곳 나그뿌르에서 불교에 귀의한 날이다. 또한 2000여년전 같은날에는 아쇼카 대왕이 깔링가 전쟁에서 돌아와 그 동안의 살생을 참회하며 불법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국시로 삼았다고 한다.

암베드까르 박사의 불교 귀의 이후 개종의 물결이 마하라슈트라와 주변 지방을 휩쓸었다. 많은 불가촉천민 카스트들이 불교에 귀의하였고, 그 개종의 물결은 박사의 사후 몇 년간 계속되었다.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는 과거 불가촉천민들에게 베푸는 혜택이 불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힘입어 북인도 지방에까지 개종의 바람이 불고 있다. 1956년 이래 수백만의 사람들이 힌두교로부터 불교에 귀의했으며 현재는 마하라슈트라 주 인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교인구는 700만여명을 넘어선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올 해의 '불법에 귀의한 날' 행사는 100만여명에 달하는 많은 불자들이 참가했고, 그 열기도 전에 없이 뜨거웠다.

■"암베드까르 박사 개종정신 잇자"

이번 '불법에 귀의한 날' 행사는 24일 학술대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인도 불가촉천민과 일본 부락민들에 대한 비교'를 주제로 하여 일본의 학자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25일에는 많은 스님들과 태국, 스리랑카, 일본, 대만 등 각국에서 모인 사절들을 모시고 법어와 축하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26일에는 아침 기념 법회를 시작으로 낮에는 나그뿌르 대학 강당에서 불교학술진흥을 위한 기금 전달식이 있었고, 저녁에는 스님들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와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축하사절, 정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 지역 불교신도들의 지주격인 수레이 사사이(Surai Sasai) 스님을 비롯하여 불자 국회의원인 가바이(R. S. Gavai)씨, 사회정의부 장관 자띠야(Satyanarayan Jatiya)씨, 봄베이 대학 총장이며 역시 불자인 뭉게까르(Mungekar) 박사, 나그뿌르 대학의 빨리-불교학과 전임학과장인 로칸데(Bhau Lokhande)박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암베드까르 박사 기념 위원회'의 위원장인 가바이 의원은 기념사를 통해 "암베드까르 박사의 개종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에서 불법을 수호하고, 불교도들의 힘을 보여주자"며 모든 불교도들의 단결을 촉구했다. 특히 외국에서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하는 스님들이나 신도들에 대하여 이들 인도의 불자들은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연단에서 연설하는 비(非) 불교도 연사의 입에서 부처님이나 암베드까르 박사에 대한 찬사가 나올 때는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아쇼카대왕 산치대탑 본뜬 대법당 낙성

이 행사는 매년 거행되어왔던 것이지만, 올 행사에서는 특히 딕샤부미에 세워진 새 법당에 일반 신도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아쇼카 대왕이 세운 산치대탑 모양을 그대로 본떠 지은 이 법당은 돔의 직경과 높이가 각각 37미터에 달한다. 1층에 불상과 산치대탑의 모형을 모신 주법당이 있고, 2층에는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 마련되었다.

행사 기간동안 부처님께 참배를 하고 법당 내부를 구경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수백미터에 달했으며, 참배를 마치고 나오는 신도들의 밝은 표정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딕샤부미를 관리하는 암베드까르 박사 기념 위원회가 5천5백만 루피(한화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완공을 본 이 법당은 이 지역 불교도들의 총력을 모아낸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지은 통신원<인도 델리대 대학원 박사과정 · 현대 인도불교 전공>

암베드까르는 누구? 불가촉천민으로 출생 '인도 현대불교의 아버지'

암베드까르는 인도 데칸지방 마디아프라데시주(州) 모우에서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의 아들로 출생했다. 정부장학금으로 1917년 컬럼비아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의 본과 영국의 런던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관리가 되었으나 신분이 높은 자들의 천대를 받고 사직, 변호사와 하층민들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1920년 〈벙어리의 소리〉를 발간하고, 1930~1932년 영국 인도 원탁회의에 피압박계급의 대표로 참석하는 등 불가촉민의 힌두사원 입역(入域)금지 철폐운동을 전개하였다.

1947년 인도 독립 후에는 헌법 기초위원장으로서 공화국 헌법제정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때문에 인도 '헌법의 아버지'로 존경받으며, 그의 생일은 인도의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1956년 10월 40만의 하층 카스트 사람들과 함께 힌두교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 인도의 신불교운동(Neo-Buddhist Movement)은 이때부터 전개됐다.

김재경 기자

생활참선 제 5의 수행법

참 나 체 험 chamna chehum

하루면 충분합니다.

불교의 참나, 주인공,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 선도의 상제,
동학의 한울림을 체험하여 일체의 존재와
조화로이 화하여,
진실을 밝히는 세상, 행복을 찾아주는 세상,
다함께 잘사는 세상을 구현키 위한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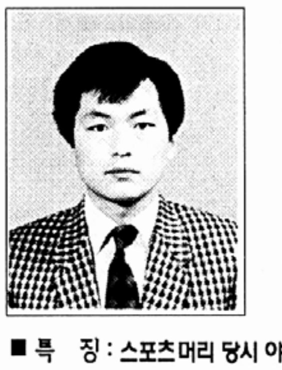
스스로 온전한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참나를 체험하여 마음과 몸의 병을 치유하고
삶과 죽음에도 메이지 않는 대자유인이 됩시다.
각자 약사여래불이요, 관음이요,
지장보살의 화현임을 확인합시다.

수행문의
대전본원 : 042)533-0569
서울 강남지원 : 02)543-2849
신촌지원 : 02)392-5165

* 영가의 장애
원인모를 질병
신기가 있는 분
일이 잘 안되는 분
짧은 시간에
극복이 가능합니다

생활참선 제 5의 수행법
참 나 체 험 www.chamna.net

사람을 찾습니다



▪ 성 명
김종조
▪ 나 이
41세 (1960년)
▪ 신 장
173cm (체중 60kg)
▪ 가출일시
2001년 4월

■ 특 징 : 스포츠머리 당시 야구모자를 쓰고 다님

" 종조야 부처님을 좋아 하니까 혹시 절에 있으면 전화좀 해다오. 찾는 것이 싫으면 찾으러 안가도 부처님 모시고 있으면 엄마는 더 감사드린다. 부디 전화해다오."

어떤 절이던지 스님께서 김종조 보셨으면 전화 좀 해주세요.

어머니 김복점

■ 연 락 처
· 충남 서천군 화양면 봉명리 (망천) 44번지 TEL. 041) 951-6848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대우경남 APT 203-207 TEL. 031) 674-1961

3일안에 깨쳐라!

마음과 육체 없음을 체험!
마음의 얽매임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내적평온. 모든 정신적 심리적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경지를 얻습니다

時空 없음과 生死 없음을 체험
관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전생의 업(유전자)을 스스로 소멸시키고 조상님들의 영혼을 천도하며 자신의 소망을 확실히 실현합니다

마음과 육체가 하나됨을 체험
참마음 수련 중 오랜 질환도 다스려져 새로운 건강과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 위치 : 강원 홍천 공작산(서울 강남에서 1시간 20분)
● 문의 : 033) 435-3166, 435-6166 FAX 435-8166

참마음수련원
心 田 堂 (구 대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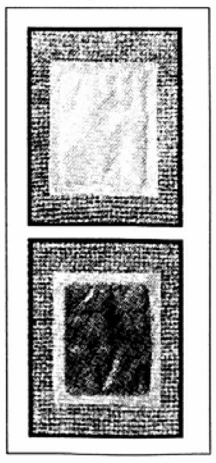
죽초액, 목초액 분말시트의 배독치유 원리와 사용법

병을 고치려면 먼저 독을 빼라

한국목탄연구소 소장 강재운 저

『발바닥에 수독과 노폐물을 빼니 놀랄만한 효과』

무릎통, 어깨통, 요통, 류마티스관절염, 각종 관절염, 염좌, 통풍, 간염, 암의후우증, 정맥류, 감기, 위염, 천식, 불면, 비만, 냉증, 고혈압, 신장, 부정맥, 치매, 뇌장해 등의 후유증 등



시트를 붙이면 이런 효과를
1) 발이나 환부에 쌓인 오염된 수독과 노폐물을 배출 시킨다.
2) 혈액이 깨끗해 진다.
3) 혈액의 순환기능이 점차 회복된다.
4) 발바닥 반사구를 자극한다.
5) 붙인 부분의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6) 환부의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킨다.
7) 수족냉증을 개선시킨다.
8) 환부에 고인 혈액(어혈)을 잘 풀리게 한다.
9) 피로의 회복이 빠르다.
10) 잠을 편히 잘 수 있다.
※ 현재하시는 요법과 병행하면 큰 효과

■ 주 요 내 용
· 혈액이 오염되면 병은 고치기 어렵다.
· 실제 체내수독과 노폐물은 빠진다.
· 배독하면 자연치유력의 본류를 탄다.
· 암환자의 통증도 해소된다.
· 시트는 통증과 부기를 빼는데 큰 역할.
· 쌓인 수독을 빼니 무릎통, 통풍도 낫는다.
· 죽초액이 목초액의 살균 소독력이 약 28~40배 높다.

한국목탄연구소 02)925-0300

10,000을 보내면 책과 체험시트를 보냄
조흥은행 359-03-004847